

제 101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4.28)

일본의 저탄소 사회전략의 현황과 전망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우고 있는 일본의 저탄소사회전략이라는 것은 어떤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일본은 이것을 통해 국내적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경제는 장기간에 따른 정체를 겪음과 동시에,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성장기반 약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경제성장을 견인할 돌파구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는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산업 경쟁력 유지 위해 개도국의 감축참여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신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세계적 수요기반 확보 필요하다.

그럼, 저탄소사회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반감시키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개발」, 「저탄소사회 구축」이라는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둘째로,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에는 모든 배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일본 국내적으로 교토의정서 목표(1990년 대비 6% 감축)달성을 약속, 이를 위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제약의 현실화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제도 및 기술적 대응 및 국제적 협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포스트 교토체제 형성에 대비하여, 저탄소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노력하여,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균형 있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A>

Q. 일본이 세우고 있는 신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A. 신에너지정책은 첫째, 태양전지, 축전지, 연료전지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고, 재료개발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일관된 제조기술과 경쟁력을 활용하고, 둘째, 신에너지 산업을 경쟁력 있는 일본의 기간산업으로, 셋째, 신에너지 도입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이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목표(장기에너지수급전망): 최대도입의 경우, 2020년 8.2%, 2030년 11.1%; 보통의 경우, 각각 7.0%, 7.7%인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